사례보고

공공도서관에서 노인독자들을 위한 몇가지에 대하여

김성옥*

전국노령위판공실상무부주임(全國老齡委辦公室常務副主任)이고 중국노인협회회장(中國老人協會會長)인 이본공(李本公)은 2004년 10월, 국제노령협회 제16차 대회에서 《중국은 세계상에서 노령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로서 목전 60세이상의 노령인구는 이미 1.4억을 초과하여 총인구의 10.97% 이상이다. 중국의 노령화속도는 목전 전 지구에서 제일 빠르며 예상컨대 본세기 중엽에 중국의 노년인구는 4억을 초과할 것이며 이는 총인구의 1/4을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4명 인구중 1명이 노년이다》고 하였다. 이렇게 노령화가 날마다 급속히 늘어나는 구체 상황에 비추어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과 2002년 선후로 《건강노령화》와 《적극노령화》란 분투목표를 제시하고 여러가지 노년생활에 유력한 조치를 취하여 충분히 노년들의 건강수명과 생활질량을 제고하는 한편 노년들로 하여금 사회문화와 정신생활에 적극 참여하여 계속적인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볼 때 급속히 늘어나고 확대되는 노령인구 문제는 그 숫자가 차지하는 비례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숫자 반포에 끝나지 않고 이에 따르는 여러부문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동반된다. 그러면 개방성적이고 공익성적인 사회문화기구인 도서관은 마땅히 노년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만약 한다고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잘 할것인가하는

* 흑룡강성목단강시조선족도서관 관장, 중국내 많은 소수 민족 중에서 유일한 도서관임, jinchengyuoo@hanmail.net

** 필자가 보내온 글을 최대한 그대로 수록하는 범위에서 일부 맞춤법이나 단어를 수정하였다. 이 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편집자 주)

심각한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다년간 조선족도서관 사업에 종사한 경험에 비추어 본인의 간단한 견해를 아래와 같이 적는다.

1.노년독자의 열독심리

노년독자의 열독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도서관 관원으로서 노년독자를 위한 복무사업의 중요한 전제이다.그들의 열독심리는 주로

1.1 습관성 심리 방면에서;

〈정년퇴임한 노인들과 도서관 사업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

대다수 노인들이 정년직전에 독서와 신문 보기를 즐기고 시사정치와 사회생활습관에 관심이 있다. 공공도서관에는 풍부한 장서와 신문잡지 자료가 저장되어 있어 열람할 수 있고 또한 독서환경도 밝고 깨끗하여 자연적으로 노년들이 신문 잡지를 열람하는 습관을 양성하는 훌륭한 장소로 된다.

1.2 존경을 받고싶은 심리 방면에서;

노년들이 정년 후에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심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신이 〈성쌓고 남은 돌〉 신세라는 자괴감과 더불어 특히 젊은이들의 이해와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더우기 연세있는 노인일수록 사회와 남들 보기에 여전히 평등한 권리를 향수하려하고 도외시하는것을 싫어한다.

1.3 사회왕래의 심리 방면에서;

노년들은 일터를 떠난후 늘 고독과 침묵을 느끼며 자칫하면 성격상에서 우울하고 소침하며 괴롭고 공포증이 생기는 등 불량한 정서가 나타난다. 하여 그들은 사회와 왕래하고 벗을 사귀어 교류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바라는 사회심리가 간절하다. 바로 공공도서관은 노년독자들이 상호간에 교류하는 중심이 되어 그들이 사회와 연계를 가질 수 있는 보금자리로 될 수 있다.

2. 공공도서관에서 노년 독자들의 열람 특징

2.1 비교적 온정하다.

노년들은 시간이 비교적 충족하여 하루의 일정과도 규율성이 있다. 보통보면 습관과 흥미가 별로 변동이 없고 늘 그 시간이면 도서관으로 오게된다.

2.2 열독시간이 비교적 길다.

노년들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에 도서관에 와서 자료를 열독할 때에도 비교적 세심하게 오래동안 보는 습관이 있는가 하면 자기 신체를 보호하여 드문드문 밖에 나가 한참씩 걸어 다니며 휴식도 하고 자기의 필기장에다 중요문헌 요지 기록도 한다.

2.3 노년독자수가 급증한다.

우리 도서관의 실례를 보아도 노년 독자가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소학생들의 자습석을 제외하고 신문잡지를 열람하는 독자의 80%가 노년독자이다.

2.4 독자성별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무릇 도서관에 오는 노년 독자를 보면(기타의 현관과 마찬가지임) 여성 독자를 자주 볼 수 없고 다수가 남성독자이다. 그 주요원인은 노년여성의 문화 소질이나 직무가 남성보다 낮은 경향이 있어 여성들은 퇴직후 가사를 돌본다. 현대여성같은 경우는 퇴직후 레저 · 오락 등을 하다보니 도서관에 와서 열람할 시간이 전혀 없다.

2.5 노년독자들은 양호한 열독습관이 있다.

노년 독자들 중 대다수가 도서를 아끼고 신문과 잡지를 열독할 때에는 천천히 만져보고 함부로 금을 긋거나 찢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2.6 노년독자들의 인터넷 지식에 대한 흥미가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보급으로 많은 노인들도 점차적으로 컴퓨터에 흥미를 갖고 키보드 자판을 익히고,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을 자문하고자 한다.

3. 노년독자들에게 최대의 관심을 갖고 이들에 대한 복무시설을 완전히 해야 한다.

3.1 노년들에게 특이한 우대정책을 실행하여 그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노년들이 비록 행동이 굼뜨고 시간 관념이 부족하지만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심리를 잘 파악하고 도서관 관원들은 우선 마음속으로는 반드시 노년독자들을 존경하고 관심있게 대해야하며 행동상으로는 세심하고 내심한 복무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관념을 수립하고 그대로 실천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하여 노년들로부터 도서관에 와서 관원들을 보면 마치 자기의 자식들 같고 환경을 보면 자기 집같이 아늑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한다.

3.2 〈우선(優先)〉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항상 학생 아니면 사회의 젊은 독자들로 붐빈다. 특히 공휴일, 설명절 같은 기한에는 열람실 좌석이 빈자리가 없게 된다. 이럴때에는 노년독자들에게 〈우선〉 정책을 실행하여 대출증과 열람증같은 것을 지체없이 제때에 발급해 노년들의 만족을 자아내야 한다. 우리 목단강조선족도서관의 열람실에서는 노인들의 이런 사정을 헤아려 학생들의 방학간에는 매일 오전 시간을 몽땅 노인들에게 돌리고 오후는 자습하는 학생들에게 돌리기로 결정하여 실행해 오고 있다.

3.3 대출증과 열람증을 우대하고 전화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

노인들의 행동이 굼뜨고 시력이 낮은 특징으로 보아 우리 도서관에서는 기본상 노인들의 의견에 근거하여 선불금도 취소하고 대출증을 발급해드리며 대출기한도 더 길게 연장해 드리고 있다. 근년에 자식들이 모두 외지로 나가고 외롭게 지내는 노년들에게는 전화로 대출기한을 연장하고 또 기타의 문의도 접수하고 있다.

3.4 노년협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대다수 노년들은 될 수록이면 많은 사회 활동에 참가하고픈 심리이고 기회만 있으면 자기

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노력한다. 이런 심리에 비추어 도서관에서는 노년독자 활동 범위를 넓혀 노년협회와 연계하여 여러가지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3.4.1 문화예술활동.

이는 노년들이 문화예술 감상 능력을 제고하고 젊었을 때의 재질을 다시 발휘하는 주요한 전제로 된다. 주요 활동으로 서법, 노래와 춤, 그리고 기류(棋類), 촬영 등이고 그 외로 위생체육을 통하여 병을 예방하고 자신의 체질을 증강하는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3.4.2 사회교육활동.

〈노인들과의 좌담 모습〉

노인들중에는 이미 교육현장에서 퇴직한 교수, 강사등 직함을 가진 지식인들이 많다. 이런 우수한 인재들을 묶어 세워 당의 선전부 사업의 한부분인 학교 교외(校外)보도원 같은 임무를 맡겨주면 너무 잘 할 수 있다. 우리도서관에서 사업한 실례를 들면 ① 2004년 우리 도서관의 당지부서기는 시조선족차세대사업위원회의(市朝鮮族觀心下一代委員會) 상무이사(常務理事)직을 겸하고 이에 맞는 활동을 많이 전개하여 우수한 성적을 취득하였다. 목단강조선중학교와 긴밀히 손잡고 학교의 요구에 따라 12명으로 구성된 교외(校外) 보도원들은 직접 담임선생 배치하에 여러 방면으로 학생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찾아했다. 초 · 중 2-3반의 송유덕(宋有德)보도원은 74세 고령인데 풍습성 관절염으로 다리를 절면서도 이를 마다하고 젊어서 교육사업하던 그 열정을 살려 편부모자녀(기러기 자녀-엄마,아빠 외지에 나감) 교양을 위하여 날마다 학생을 찾아 대화하고 생활이 곤란한 학생에게는 〈특곤생〉 증명까지 떼주어 많은 학생들이 담임 선생과 하지않던 속말을 보도원과 하게 되였다. ② 노년들과 학생들이 함께 조직하는 활동이 아주 좋다. 노년일 수록 애들을 좋아하고 애들과 같이 있으면 심리상에서 더 젊어지고 생기가 넘치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 관에서 조직한 중한수교 10주년 기념모임 활동에서도 교외(校外)보도원선생들은 붉은 넥타이를 매고 학생들과 같이 연출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고하여 그 효과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③ 노인들을 조직하여 학교를 꾸리도록 지지해 주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조선족 노인들 앞에 놓여진 의무는 간고하다. 자식들이 외지로 돈벌려간 다음 이 후손들을 맡아 밥해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아프면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역할이 대단하다. 아닌게 아니라 학부형회의에 가보면 가정마다 할머니

아니면 보모 할머니들이 참가하여 마치 노인회에 온듯한 느낌이다. 도서관 당지부(黨支部)에서는 목단강조선족차세대사업위원회의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런 임무를 진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에게 〈학부모학교〉를 꾸려 어떻게 하면 손자들의 심리를 장악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나가게끔 교육하겠는가, 간단한 교과서 학습 보도는 어떻게 할것인가, 감기 치료는 어떻게 대처하겠는가하는 상식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학부모 학교에 대한 자료를 공급하여 사회나 가정의 환영을 받았다. ④ 가두 노인 독보조(讀報組)에 자료를 공급해 주었다. 목단강시내에는 조선족목단가두판사처(牡丹江市朝鮮族街道辦事處)에서 꾸리는 5개 노인 독보조가 있는데 약 150여명이 노인들이 매일 활동실에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관내의 소학생 우수 독자들을 조직하여 신문 잡지와 이야기 도서들을 들고가서 읽어도 드리고 시간이 있으면 실내 청소도 깨끗이 해주었다. 이는 비록 사소한 일 같지만 이를 통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우수한 많은 학생들과 자주 접촉하는 그 속에서 지나간 아름다움을 찾고 앞으로 더 건강하게 생활해 나가는 신심을 갖도록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노인들은 과거, 현재 즉 미래를 연계하는 유대이다. 그들의 지혜와 경험은 진실한 사회 명맥을 형성하여 이들은 진정한 사회의 재부이지 부담이 아니다. 노년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영광스러운 전통이고 역시 공공도서관이 미룰 수 없는 책임이다. 공공도서관은 교육, 문화, 정보를 전파하는 유생역량(有生力量)으로서 사람들이 평화와 정신 행복을 찾는 기본 자원이다. 전민이 동원되어 노인들의 정신상 만족과 향수를 위해 있는 힘껏 노력하자.